광주·전남 장애학생선수들 '빛나는 선전'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에서 총 9개의 메달을 획득한 광주 조정선수단. 〈광주시장애인체육회 제공〉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내고 기념촬영을 하는 전남 육상선수단. 〈전남장애인체육회 제공〉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광주 금 15개 등 메달 46개 전남 금 9개 등 메달 44개

광주·전남 장애학생선수들이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에서 각각 46개, 44개 메달을 수확했다.

22일 광주시장애인체육회에 따르면 광주 선수단은 17일부터 20일까지 경상북도 일원에서 열린 대회에서 메달 46개(금15, 은18, 동13)를 획득했다. 지난 대회(금18, 은15, 동6)에 비해 10개의 메달을 추가했다.

김명철(광주자연과학고2)은 조정부문 3관왕, 김선정(상무중3)은 육상 2관왕에 올랐다.

김명철은 남자 1000m 지적장애 단체전(공명진, 김명철)과 개인전, 혼성 1000m 지적장애 단체전(강수빈, 김명철)에서 각각 금메달을 획득했다. 광주는 조정에서 금메달 4개, 은메달 4개, 동메달 1개 등 총 9개의 메달을 획득, 이 부문 종합준우승을 했다.

김선정은 시각장애 초·중등부 여자 100m, 200m에서 각각 17.58초와 36.98초의 기록으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송형우(대자중2), 정다은(광주선우학교·중3)은 배드민턴 혼성 복식 지적장애 중·고등부에서 충남(김주희·김훈석)을 이기고 1위를 차지했다.

육상 김영주, 조정 이민준·마지영조가 은메달을 따냈고 배드민턴 정다은·김시연(여자 단식 중고등부)조, 조정 이민준·정민우, 수영 정수진(여자 접영 50m S14 고등부)이 동메달을 획득했다.

전남 선수단은 금메달 9개, 은메달 21개, 동메달 14개 등 모두 44개 메달을 획득했다.

장주일(덕수학교)은 남자 고등부 800m에서 2분32초54, 400m 릴레이에서 56.00 기록으로 2관왕을 달성했다.

조경인(목포인성학교)은 남자 초등부 높이뛰기와 멀리뛰기 2관왕, 박세찬(소림학교)은 남자 고등부 400m, 릴레이 200m 2관을 차지했다.

수영 부문에서는 정우찬(여수양지초)이 은메달 2개, 김수현(구례북초)이 은메달 3개를 목에 걸었다.

전남도장애인체육회 김은래 사무처장은 "장애학생들이 꿈과 끼를 펼칠 수 있도록 교육청과 연계해 장애학생 체육 활성화를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우상혁 없기에…

다이아몬드리그 높이뛰기 로베트 2m28 넘어 우승

장고 로베트(30·캐나다)가 우상혁(26·국군체육부대)이 불참한 버밍엄 다이아몬드리그 남자 높이뛰기에서 우승했다.

로베트는 21일(현지시간) 영국 버밍엄에서 열린 2022 세계육상연맹 다이아몬드리그 경기에서 2m28을 넘어 2m25에 그친 장마르코 탬베리(30·이탈리아)를 꺾었다.

지난 14일 카타르 도하에서 치른 2022 다이아몬드리그 개막전에서 로베트는 2m27로 3위에 올랐다.

도하 다이아몬드리그 챔피언은 우상혁이었다. 우상혁은 2022 실외 경기 세계 최고인 2m33을 뛰어 2m30의 무타즈 에사 바심(31·카타르)을 제치고 우승했다.

2022년 실내와 실외 세계 1~3위 기록(실내 2m36, 2m35, 2m34·실외 2m33, 2m32, 2m30)을 모두 보유한 우상혁은 버밍엄 대회에 출전하지 않았다.

역대 2위이자 현역 1위인 2m43 기록을 보유한 바심도 불참했다.

바심과 함께 도쿄올림픽 공동 1위에 오른 탬베리는 명예 회복을 노렸지만, 기대 이하의 기록으로 2위를 했다.

남자 100m에서는 에런 브라운(캐나다)이 10초13으로 깜짝 우승했다.

디나 어셔-스미스(영국)는 여자 100m에서 11초11로를 기록, 11초12의 셰리카 잭슨(자메이카), 11초13의 데릴 네이타(영국)를 제치고 1위에 올랐다.

/연합뉴스

"우즈, 다르다는 것 증명했다"

3라운드 마친 뒤 기권에도 동료 선수들 격려 쏟아져

타이거 우즈가 22일 열린 PGA 챔피언십 3라운드 7번홀에서 두번째 샷을 날리고 있다. /연합뉴스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PGA 챔피언십 3라운드를 마친 뒤 기권한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미국)에게 동료 선수들이 안타까운 마음을 전했다.

22일(한국시간) PGA 챔피언십 셋째 날 버디 1개와 보기 7개, 트리플 보기 1개로 9오버파 79타를 기록한 우즈는 3라운드 직후 기권했다.

우즈는 지난 1995년 아마추어 시절 참가한 US오픈에서 2라운드 도중 손목을 다쳐 대회를 기권한 적은 있지만, PGA 데뷔 후 메이저 대회를 다 치르지 못하고 경기장을 떠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날 2라운드를 마친 뒤 "다리가 몹시 아프다"며 대회를 정상적으로 치를 몸 상태가 아님을 밝힌 우즈는 이날 티샷을 물에 빠뜨리는 등 실수를 범하면서 PGA 챔피언십에서 가장 저조한 개인 성적을 기록했다.

3라운드를 마친 뒤 우즈는 현지 매체와 인터뷰에서 "단지 경기를 잘하지 못했다. 공을 잘 치지 못했고, 내게 필요했던 좋은 출발을 하지도 못했다"면서 "나는 아무것도 제대로 한 것이 없다. 좋은 샷을 많이 치지 못했고 결과적으로 많은 타수를 잃었다"고 말했다.

골프황제의 쓸쓸한 기권에 그와 함께 이번 대회를 치렀던 동료 선수들도 안타까움을 표했다.

우즈와 함께 1·2라운드 같은 조에서 경기를 치른 로리 매킬로이(북아일랜드)는 "우즈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정신적으로 강인하다. 그는 진정한 프로"라며 "내가 만약 우즈였다면 2라운드 후 집으로 가는 것을 고려했을 것이다. 하지만 우즈는 그가 다르다는 것을 증명했다"고 격려했다.

3라운드에서 우즈와 같은 조로 경기를 치른 숀 노리스(남아공)도 "우즈가 이런 일을 겪어야 하는 것이 안타깝다"면서 "하지만 우즈는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줬다. 이런 일을 겪으면서도 고군분투하는 모습은 쉽게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호남대, 中 충칭시 LAG 팀과 e스포츠 교류전

리그오브레전드 종목 선의의 경쟁…향후 정기전 등 교류 확대

호남대학교 e스포츠산업학과(학과장 정연철) 수리부엉이 팀(Eagle Owls·지도교수 차재관)이 최근 중국 충칭시 LAG 팀과 5월 한·중 교류전을 진행했다.

이번 교류전은 중국 서버 아이디에 접속해 리그오브레전드(LoL) 종목으로 진행됐다.

수리부엉이 팀은 장철호, 장우석, 장민수(이상 2년), 이서현, 김훈 (이상 1년)이 출전해 중국 팀과 선의의 경쟁을 펼쳤다.

또한 이번 교류전은 이준혁(2년) 학생이 진행하는 경기 중계를 유튜브 채널(채널명 광주이스포츠교육원) 등에서 라이브로 중계했다.

수리부엉이는 이번 교류전을 시작으로 충칭시 LAG 팀과 정기전을 진행할 예정이다.

배틀그라운드, 오버워치 등 다양한 종목에 대해 한·중 교류전을 마련할 계획이다.

교류전에 참가한 장철호(2년)씨는 "중국팀들의 챔피언 선택과 경기 진행에 따른 전술 등을 이해할 수 있었다"면서 "정기적인 한·중 교류전을 통해 상호 방문 등의 실질적인 협력 기회로 삼겠다"고 말했다.

호남대학교 e스포츠산업학과는 중국, 미국 등 국제 교류전을 통한 다양한 게임밍 기술 교류 등을 확대해 글로벌 e스포츠교육의 허브 역할을 담당하는 한편 이스포츠를 생활 스포츠로 확산하기 위해 청소년 이스포츠 학교 클럽 활동 지원, 청소년 게임교실, 청소년 이스포츠 캠프 등 다양한 활동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즐거운 문화산책

LOTTE CINEMA | 충장로관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1관	범죄도시 2
2관	범죄도시 2
3관	닥터 스트레인지: 대혼돈의 멀티버스, 배드 가이즈
4관	범죄도시 2
5관	범죄도시 2, 잭 인 더 박스
6관	범죄도시 2
9관	닥터 스트레인지: 대혼돈의 멀티버스
7관 씨네커플	범죄도시 2, 아치의 노래, 정태춘, 니 부모 얼굴이 보고 싶다, 서울괴담
8관 씨네커플	범죄도시 2, 서울괴담, 니 부모 얼굴이 보고 싶다, 신비한 동물들과 덤블도어의 비밀

광주문화예술회관 문의 062)613-8353

광주시립교향악단 오티움 콘서트 Ⅲ
Brahms's
일시 : 2022.06.03.(금)
장소 : 빛고을시민문화관
문의 : 062-524-5086

광주국악상설공연
일시 : 2022.05.03.(화)~31.(화)
매주 화요일 ~ 토요일
장소 : 광주 공연마루
문의 : 062-613-8379, 8372